

아시아 작가 작품 통해 문화·역사 이해

아시아문학 독서 토론모임

12월까지 격주 모임 개최

작가회의 회원 20명 참여

“문학 매개 亞문화중심 역할 모색”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속 문인들로 구성된 '아시아문학 독서토론 모임'(아문독)의 세미나 장면.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아시아 문화와 문학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독서토론 모임이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의 중심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열리는 독서토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단체 이름은 '아시아문학 독서 토론모임'(아문독).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속 문인들로 구성된 아문독은 오는 12월까지(오후 7시) 격주로 다문문학연구소(대의동 83-3)에서 모임을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독서토론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진행됐다.

소속 회원들은 채희운 회장을 비롯해 전영호·조성현·이진·김현주·김민라 소설가, 조진태·김완·나종영 시인 등 모두 20여 명이다.

아문독이 꾸려진 것은 격년제로 열리는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방향성을 고민하던 작가들의 모임에서 비롯됐다. 문인들은 광주가 아시아문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미 유럽 중심의 문학 지평을 아시아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아울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때마침 광주여대에서 퇴임을 한 채희운 소설가가 창작공간 '다문문학연구소'를 마련하고 제자와 문단 선배들과 교류를 이어오던 참이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창작을 매개로 친목도모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아시아를 매개하는 문학이라는 화두가 관심사로 대두됐다. 다시 말해 아시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우리 문화가 아시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동안 많이 잊혀지지 않은 아

시아 문학 작품을 함께 읽어나가는 뜻으로 모아진 것이다.

모임을 이끌어가는 채희운 회장은 “그동안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몇 차례 열렸지만 지역 작가들이 소외된 느낌이 있었다. 아시아문학을 우리가 잘 몰랐던 측면이 적잖은 원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시아 작가들을 알고 준비를 해두면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뜻을 올린 아문독은 3월 8일 첫 이란시선집 '미친 듯 푸른 하늘을 보았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회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는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한 김완 시인이 맡았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갓산 카나파니의 '불멸속의 사람들'(엄수경), 아랍 사하르 갈리파의 '유산'(채희운), 시리아 시선 '서남아시아의 시'(나종영), 인도네시아 목타르 루비스의 '자카르타의 황혼'(전영호), 필리핀-태국-팔레스타인 작가의 '단편모음-쓰레기 외 2편'(박관서), 키르기스스탄 친기즈 아이드마토프의 '백년보다 긴 하루'(조성현) 작품이 다뤄졌다.

발제와 토론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의미한 아시아 문학 작품 위주로 펼쳐진다. 발제를 맡은 문인이 발제문을 준비하고 다른 작가들은 작품 관련 논문 및 서평을 찾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모임 당일엔 전체 회원들이 참여해 세미나 형식의 토론과 질문을 통해 작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진 작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아시아 작가 작품 수준이 좋아 창작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며 “특정 작가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까지 알 수 있어서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14일에는 제1회 아시아문학상을 수상한 몽고 작가 담딘수렌 우리양키이의 '낙타처럼 울 수 있음'을 주제로 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발제는 김철홍 작가가 맡는다. 이후 인도의 로한인 미스트리 '적절한 균형'(김경희), 방글라데시의 사힌 아크타르 '비랑기나를 찾아서'(김지원), 베트남 응웬 반 봉의 '사이공의 흰옷'(한경훈) 등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문의 010-7940-479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오랜만에 만난 지인은 올 여름 근사한 여름 휴가를 세웠다며 자랑했다. 코로나19로 이번 여름 휴가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너 뛰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녀의 마음을 들뜨게 한 주인공은 바로 '이건희 컬렉션'이었다. 지난 4월 고 이건의 삼성회장 유족으로부터 2만3000여 점의 작품을 기증받은 국·공립 미술관이 오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작품을 공개하기로 하자 이들 미술관을 둘러보는 전국투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건희 컬렉션'은 세기의 컬렉션답게 화려한 면면을 자랑한다. 문화재 9797건 2만1600여 점을 기증 받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증작 리스트에는 겸재 정선(1676~1759)의 '정선필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보

선)를 품에 안았다. 이 때문에 문화애호가들은 이들 미술관을 둘러 지역과 인연이 있는 기증작들과 만나는 특별한 '나들이'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일까.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에 예정된 일정을 앞당겨 이달부터 '고 이건의 회장 소재 문화재 특별공개전'을 시작으로 10월 '문화재 명품전'을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7월 '한국미, 어제와 오늘' 전(덕수궁관), 8월 '이건희 컬렉션 1부: 근대명품(서울관)전, 12월 '이건희 컬렉션 2부: 해외거장'전, 내년 3월 '이건희 컬렉션 3부: 이중섭 특별전'을 일제히 선보인다. 대구미술관 역시 근대미술작품 12점을 공개하는 '월길 홈'(6월29~8월29일)을 통해 올 여름 관광객들을 대구로 불러 들인다는 복안이다.

‘이건희 컬렉션 투어’

물 제2015호), 단원 김홍도(1757~1806?)의 마지막 그림 '김홍도필 추상부도'(보물 제1393호) 등 국가 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이 포함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컬렉션 역시 '명작의 향연'이다. 기증작 총 1천488점 가운데에는 유영국, 이중섭, 장욱진, 이응노, 박수근, 권진규 등 한국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장들의 작품들이 골고루 들어 있다. 특히 외국 미술관에서나 접할 수 있는 모네, 고갱, 피카소,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마르크 샤갈 등의 작품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의 국립미술관도 예외가 아니다. 김환기, 이중섭, 천경자, 이응노 등의 작품 30점을 기증받은 광주시립미술관을 필두로 전남도립미술관, 대구미술관, 강원도 양구 박수근 미술관도 1점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가들의 컬렉

최근 광주시립미술관도 오는 29일 부터 8월 15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기증작품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8월까지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미술관들이 일정을 앞당겨 공개하자 서둘러 이번 전시회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건희 컬렉션의 열기를 놓칠 뻔했지만 뒤늦게나마 전시일정을 앞당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건희 컬렉션'을 오는 9월 개막하는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일정에 맞춰 기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 인프라와 문화콘텐츠(전시·공연)를 연계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이는 곧 광주시가 지향하는 '예술관광'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문화와 관광이 윈윈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떤가.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오월창작가요제 대상에 오아밴드 '초'

창작지원금 1000만원 수여



제11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경연에서 오아밴드가 '초(Candle)'로 대상을 수상했다.

제11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경연에서 오아밴드의 '초(Candle)'가 대상(창작 지원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초(Candle)'는 어둠을 밝히고 스러져가는 초와 닮아 있는 오월영령들의 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80년 5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내던졌던 광주 시민들을 기억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

금상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세대의 삶에 대해 되묻는 피싱걸스의 'Hipster slave'가 수상했으며, 은상은 그날의 5월에 떠나가 여름을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마음을 담은 혜성의 '하루'가 받았다. 동상은 김도연의

'봄은 기억하겠지'가 수상했으며 장려상은 골목등대의 '신념', 기드온의 '민들레꽃이 피면', 무라드의 '여명', 빅이슈의 '나무가 된 사람들', 오백송이의 '너의 이름으로 저장하기', 밴드 흥삼캔디의 '헬리콥터' 등이 받았다.

시단법인 오월음악이 주최·주관한 올해 오월창작가요제에는 총 161곡이 접수됐다. 본선 경연곡 10곡은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실황음반으로 발매되며, 공연 영상은 공식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전은재 기자 ei6621@

제3회 조태일문학상 7월까지 공모

죽형조태일기념사업회와 곡성군은 2021 제3회 조태일문학상을 공모한다.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사진) 시인은 어두운 시대에 맞서 울곧은 소리를 냈고 자연과 하나된 순정한 정서를 아름답게 형상화한 남도가 배출한 대표 시인이다. 대표작 '국토' '아침선박'이 있으며 1969년 시전문지 '시인'을 창간해 많은 시인들을 양성했다.

이번 공모 분야는 시 장르로, 2021년 6월말 기준 2년 이내 발간 시집으로 한정하며 상금은 2000만원이다. 대한민국 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추천위원의 추천 또는 본인 직접 응모하면 된다.

작품 마감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문학들출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공모요강은 곡성군 홈페이지 참조.

한편 1회 수상자는 이대홍 시인, 2회 수상자는 손택수 시인이 선정된 바 있다. 문의 010-3901-536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